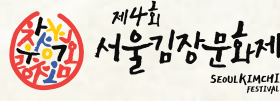


국제로타리 3650지구, 2017 김장 나눔 봉사 실시



11월 4일 서울시청 광장, 로타리안과 가족, 로타랙트, 인터랙트 등
700여명 참가, 김장김치 30톤 함께 담그며 로타리 봉사의 의미 새겨

국제로타리 3650지구 '2017 김장 나눔 합동 봉사'가 지난 11월 4일(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시청 광장에서 로타리안 및 가족, 로타랙트, 인터랙트 회원 등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제4회 서울시 김장문화제의 일환으로 함께 하는 이번 2017 김장 나누기 봉사에는 우리 3650지구 로타리안들과 일반 서울 시민, 기타 기업 및 기관, 외국인 등 약 1천 2백여명이 참여하여 서울시가 준비한 김장 재료로 김장을 직접 담그고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우리 지구 로타리안들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담긴 김장 김치 30톤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서울시 봉사수혜단체들로 기부됐다.

2015년부터 3년째 서울시 김장문화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지구는 이번 봉사활동에 45개 클럽 로타리안 및 가족들과 신세대 봉사파트너 등 700여명이 참가하여, 연합 봉사의 의미와 우정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물푸레 리틀렉트 클럽의 축하공연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최진욱 사무총장, 백성희 사회봉사위원장, 김정호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여성 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지구임원, 로타랙트 지구임원, 각 클럽 인터랙트 지도교사 등 40여명이 행사당일 오전부터 참가자 안내 및 행사 준비를 함께 하며 봉사를 펼쳤다.

아울러 우리 지구 각 클럽이 후원하는 9개 로타랙트 클럽 174명과 10개 인터랙트 클럽에서 190명의 신세대 봉사단원들이 참가하여 로타리안들과 어울어져 김장을 함께 담그며 봉사정신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제4회 김장문화제는 개막 첫날인 11월 3일(금)에, 이순동 총재는 박원순 서울 시장 등과 함께 김장 버무림 개막행사에 참여했으며, 이튿날인 11월 4일에는 우리 3650지구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김장 봉사를 펼친 것을 비롯, 이순동 총재가 참가자 대표로 인사말을 하는 등, 로타리의 봉사활동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몫을 했다.



2017 김장나눔봉사, 총재 인사 - 2017.11.4.(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1천명 산타'들의 김장봉사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이순동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을 축복하는 듯 천고마비의 가을 날씨도 너무나 맑고 좋습니다. 오늘 김장문화제 봉사활동에 직장동료 가족들과 흔쾌히 나와 주신 여러분들과 이 봉사를 가능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울시와 여러 기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민간 봉사단체인 국제로타리 서울 3650지구 총재 이순동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로타리안들뿐 만 아니라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울시교육청, 경기초등학교 캠프스카우트단원들과 119 의용 소방대, 외국인 등 많은 단체의 시민들 1천 2백여명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가장 많은 봉사자가 참가한 로타리를 대표해서 제가 인사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 단상에서 내려다보니 붉은색의 앞치마와 두건을 쓰신 모습이 '1천명의 산타'가 서울광장에 오셔서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김치담그기 봉사를 하러 오신 듯합니다. 전체를 못 보시는 여러분들은 귀여운 요정들이 신데렐라를 위해 일해 주는 아름다운 동화속의 한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린 시절 김장 하는 날은 동네 잔칫날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비록 몇 시간의 봉사이지만 잔칫날에 초대된 것에 감사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김장김치를 나눠드릴 수 있는 큰 기쁨과 봉사의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치는 아무리 식성이 세계화가 되었다 해도 우리들에게는 김치만 있으면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되어도 맛있는 식탁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겨울 식량입니다.

또 김장은 온 동네 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함께 담그는 단합의 장이며 주변의 어려운 가정에 나눠드림으로서 서로간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우리민족이 가장 오래전부터 시행한 봉사로서 우리의 자랑일 것 입니다.

로타리는 세계 200여개국 120만여명, 우리나라에만 7만여명으로 구성된 세계최대의 민간 봉사 단체입니다. 서울 3650지구는 3,0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가족이 함께하는 패밀리 투게더>를 슬로건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로타리회원과 가족, 인터랙트, 로타랙트등 청소년 봉사단원 등 700여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봉사에 나서주신 모든 참가가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봉사를 도와주신 행사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올 겨울 차가운 서울의 기온을 따뜻하게 올려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도 맛깔스러운 봉사솜씨를 발휘한 700명의 3650지구 로타리 패밀리

“김치”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넘어서, 어느덧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 매김한 우리의 김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어릴 적 김장하는 날, 월동준비의 첫 시작이었던 김장을 할 때면, 마치고 온 동네 잔치처럼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들이 모여 앉아 배추를 다듬고, 무채를 썰고, 양념을 버무려서 맛깔난 김치를 수백포기씩 담아내었다.

이렇게 만든 김치를 차곡차곡 장독에 넣어 마당 한 칸에 묻어두기 전, 그 중에 제일 먹음직스런 몇 포기는 대접에 넘치게 담아 앞집 뒷집으로 나누고, 또 몇 포기는 손으로 쪽쪽 찢어 곁절이를 해서 수육까지 삶아 다 같이 둘러 앉아 맛있게 먹었다. 이런 우리 전통의 김치는 함께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사람들을 어느새 한식구로 만들어 버리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들을 초대해 김장축제를 열고, 그들은 기꺼이 즐겁게 만들고 자기가 만든 김치를 매워서 연신 물을 마시면서도 맛보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서울을 대표하는 김장축제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지만 우리 3650지구는 세 번째 참석이다.

지난 이태동안 참석해서 몸에 밴 봉사솜씨를 맛깔스럽게 보인 때문인지, 우리 3650지구 로타리클럽은 여러 단체들 속에서 우선적으로 초대(?)되는 영광을 안았고 모두들 열심히 참여해서 나눔의 봉사를 멋지게 해냈다.



지구 사회봉사위원장 백성희(서울장원RC)



로타랙트와 인터랙트를 포함하여 700여명의 3650지구 로타리 패밀리가 오후 1시부터 5시간여 동안 모두들 열심히 30여 톤의 김치를 정성스럽게 버무렸다. 어느 분이 드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나눠 먹을 겨울 밑반찬인 김치를 사랑을 가득 담아 버무렸다.

마침 날씨도 춥지 않았고 서울시와 함께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많은 양의 김치를 빠르게 담아낼 수 있었다.

올해는 무대에서 흥겨운 공연이 진행되어서 김장을 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어깨를 들썩거리고, 어느 팀은 고무장갑을 낀 채 익살스런 몸동작으로 연신 춤을 추어서 보는 사람들의 피로를 잊게 해줬다.

이렇게 대규모의 봉사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요인은, 봉사라면 언제라도 “도움 일 없느냐?”고 달려오시는 로타리안의 정성과, 공부하기도 바쁜 시간에 참석해서 정성을 아끼지 않는 로타랙트와 인터랙트 회원들의 참여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큰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도 한 가득이다.

올해도 김장축제는 잘 마쳤다. 잘 마친 행사에 굳이 아쉬웠던 점을 말한다면, 역할분담이 다소 미흡해서 김장재료들의 포장박스를 제때 빼내지 못해 이동이 불편했던 점과, 숙련된 분의 배치가 고르지 못해 몇 개 테이블의 김장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다. 앞으로 우리 로타리안들이 김장 봉사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제 우리가 정성들여 만든 김치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 그것은 사랑, 기쁨과 보람이 넘쳐났던 시간

글. 서울남대문RC 회장 남연승

서울광장으로 모여라 ~

합성과 함께 3650 이순동 총재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여 각 지역 로타리안과 가족들, 로타랙트, 인터랙트 회원 등 700여명이 다함께 김장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재료준비가 다 되어있어 금방 끝나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700명이 모였지만 30톤의 김장김치 분량을 '아마추어'들이기에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서울남대문로타리클럽의 83세 원로회원인 손필영 전회장님은 “잠시 들러 격려만 해주러왔어.” 하셨는데 52포기의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그래도 어찌 끝났나 싶었는데, “여기 좀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요청의 소리가 들려 뒤돌아 보니 인터랙트 학생들이 찢찢 매고 있었습니다.

처음 김장을 해 보는 아이들이라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어려운 김장을 다하고 뒷정리도 열심히 하는 모습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 해 기뻐했습니다.

정리 후 직접 담은 김치와 돼지고기보쌈 서로 입에 먹여주며 하루의 고단함을 사랑으로 끝을 냈지요. 나눔 그것은 사랑임을 다시 느낀 하루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로타리안들의 참여로 더 의미 있는 봉사가 되길 바랍니다.



단풍처럼 아름다운 마음, 가족과 함께하니 더 멋진 하루

서울시청 앞 광장은 빨강 앞치마, 빨강 스카프를 두른 자원봉사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덕수궁의 단풍이 시청 앞 광장까지 내려와 붉게 물들인 듯 사람과 가을풍경이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가을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 오후, 로타리안 및 가족, 로타랙트, 인터랙트 등 700여 명이 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습은 장관을 이루었고 너무 멋진 하루였습니다.

배추 포기마다 맛있는 양념이 버무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 김장김치가 차가운 겨울날 어느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양식이 될 거란 생각에 힘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한 포기 배추가 정성으로 숙성돼 맛있는 김치가 되듯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봉사의 보람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또 이번 봉사에는 로타리안 가족들까지 나와 한마음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3650지구 슬로건인 “Family Together”의 의미가 더욱 크게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제4회 김장문화봉사 대축제에 참가해 나눔을 통한 아름다운 삶에 동참하게 된 가슴 벅찬 하루,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글. 서울새신라RC 전회장 한규선



로타리 회원들과 로타랙트, 인터랙트가 모두 함께 봉사할 수 있음에 감동

글. 중앙로타랙트클럽 회장 정창화
(중앙대학교 3학년)



지난 11월 4일, 174명의 로타랙트, 그리고 로타리안, 인터랙트 등 700명이 함께 참여한 3650지구 2017 김장나눔 봉사활동에 함께했습니다.

항상 어머니께서 김장을 버무리셨던 모습만 지켜본 저에게 이번 김장 봉사는 새로운 경험과 함께 내가 만든 김치가 소외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4일 오후 1시에 각 클럽 회원들이 모여 3650지구 부스에서 김장봉사 위생키트를 받았습니다. 키트 속에는 앞치마, 장갑, 위생모자, 마스크, 손난로가 들어있었는데 모두 착용을 마치고 김치 100포기 정도는 거뜬히 버무리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았습니다.

저희 중앙대로타랙트클럽 회원들은 배정된 위치에 가서 김장문화제 사회자님의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김장 방법과 힘있게 외치신 파이팅 구호를 들으며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전과의 자신감 넘친 제 모습과는 달리 생각보다 김치를 버무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배춧잎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비슷한 양의 양념을 버무리면 되는 이론으로는 참 쉬울 꺼 같은 것이 제가 하려고보니 완성된 어느 김치는 희멀건하고, 어느 김치는 빨갛고 제각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 남들과 달리 속도가 느린 것 같아 빨리 김치를 버무리려 하다 보니 양념을 미처 버무리지 못한 배춧잎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무렵, 저에게 한 인터랙트 학생이 다가와 “이렇게 하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인터랙트 학생에게 조언을 듣고 나니 좀 전의 김치보다 훨씬 완성된 모양의 김치를 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 말을 걸기 어려웠음에도 먼저 손을 내민 학생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주변을 살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이 학생의 사려 깊음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시간여 진행된 김장봉사 사이사이에는 김장문화제 측에서 초청한 트로트 가수들이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 주었고, 덕분에 저희들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김장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장을 마친 뒤 간식으로 주어진 수육과 함께 우리들이 직접 버무린 김치를 먹게 되었는데, 시장기가 반찬이며, 직접 버무린 김치도 먹게 되어 맛이 배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김장봉사는 조금 서툰 솜씨지만 내가 만든 김치 한 포기가 어느 소외 이웃의 따뜻한 식사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행복감과 가족을 위해 매년 초겨울 고생하신 어머니께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3650지구 로타리안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로타리회원들과 로타랙트, 인터랙트가 다함께 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봉사의 참된 '眞心'을 더 많이 느끼고 싶습니다

글. 17-18 로타랙트 지구연합 이재휘
(송실남산로타랙트클럽)



안녕하세요. 3650 지구 17-18년도 연락 위원 '송실남산 로타랙트' 이재휘라고 합니다. 하늘도 저희의 마음을 아셨는지 11월 4일의 하늘은 매우 맑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당일날 오전부로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는 아주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맑은 하늘과 함께 기분 좋게 끝난 시험은 저를 아주 신나게 해주었고, 이 신남을 즐기 위하여 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김장봉사에 다녀왔습니다.

김장봉사에는 저희 로타랙트뿐만이 아니라 로타리안들과 인터랙트 회원들도 다 같이 참여하는 아주 뜻깊은 봉사였습니다. 더하여 저희들이 직접 열성을 다하여 만든 김치는 서울시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어르신들에게 배달이 되기로 되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봉사를 로타랙트뿐만이 아니라 인터랙트, 로타리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김장이 끝난 뒤 저희들이 직접 만든 김치를 보쌈과 함께 먹는 그 맛은 그 어떤 귀중품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맛이었습니다. 김장을 하면서 많이 처음 김장을 해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팔다리가 쭈신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모두 불평불만 없이 봉사를 함께 한 것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로타랙트뿐만이 아닌, 인터랙트 학생들과 로타리 회원분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봉사를 통하여 봉사의 참된 '眞心'을 더욱 많이 느끼고 싶습니다.



힘든 것도 잊게 만든 따뜻했던 김장봉사



나는 평소 무슨 봉사활동을 할까 많이 고민 했었다. 게다가 봉사활동 시간도 생각보다 적어서 뜻깊고 무언가 배워갈 수 있는 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봉사활동을 신청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좋은 봉사활동이 있다며 인터랙트 아이들을 불렀다.

항상 집안에서 김장을 할 때 공부한다는 핑계로 피하곤 했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 김장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 학교에서 1년에 한번 씩 김장 봉사를 해서 그런지 김장에 익숙해진 나를 발견 할 수 있게 되었다. 날씨가 조금 쌀쌀했던지라 춥고, 손이 시렸지만 좋은 추억이자 경험을 하게 된 것 같다.

글. 덕성여중 인터랙트 2학년 위에서

몇 시간 동안 서서 했던 봉사라 힘들기도 했지만 그 힘든 마음보다 우리가 만든 김치를 어려운 분께 나눌 생각을 하니 좋아서 그 힘든 생각을 다 잊고 했던 것 같다.

비록 김장체험이 다 끝난 후에도 손에서 김치 냄새가 났지만 그걸 감수 할 수 있을 만큼 좋았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많이 서툴러서 어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했던 것 같고, 다음에도 이렇게 뜻깊은 봉사활동이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

글. 덕성여중 인터랙트 2학년 맹미금